



●●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www.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금동희

1월에 인사발령으로 부서배치를 새로 받아 서무 및 도서관리 업무를 맡아보다 보니 이전 업무 때 접할 수 없었던 여러 간행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언론  사람」을 받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기고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 전에 볼 수 없었던 지형적 특성에 근거하여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무척 신선하고 색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적 봉건제도에 가까운 다이묘영주제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식의 역사발전을 실천할 수 있었던 유일민족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려는 저자의 심증을 잘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러한 일본의 지형적 특수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인의 '혼네'와 '다테마에'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약간의 설명이 있었다면 더욱더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언론  사람」의 애독자가 될 거 같네요.

김명선

연휴 막바지에 우연히 접한 「언론  사람」을 읽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딱딱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 '국악계의 외국인단' 등의 글들을 보면서 균형 잡히고 알찬 내용 구성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에서 최근에 한일 갈등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관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한일 간 여러 가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악계의 외국인단'을 보면서 사회 지도층이 국악의 매력에 빠져드는 현상이 다만 국악이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취미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비개비란 단어가 재미있고 눈길을 끄는데 이렇게 일반인이 취미에 빠져드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예훼손 사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제로 활동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아서 저 같은 일반인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론  사람」을 처음 접했을 때 명예훼손 사례와 같이 업무 중심의 잡지라고 생각했는데 업무 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숙

법률 용어도 이따금 나온 언론 중재 이야기도 좋았지만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수필 형식인 일상생활에서의 애환을 그린 수필 형식인 지연옥 중재위원의 위원단상 '쿠크리칼과 냉이'는 새봄을 샘내듯이 맑고 산뜻한 풀내음이 묻어 나온 글 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냉이와 달래가 나오는 발단부터 예사롭지 않더니만 그 인연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은 짧지만 반전 효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봉정만리나 되는 히말라야 산중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친구 부탁으로 어렵게 구입한 쿠크리칼 두 자루가 인천공항에서 무기로 오인 받은 사연 등으로 탈선이 될 줄이야! 「언론  사람」을 읽고 이래저래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